

# 『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형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, 서울시립미술관이 보유한 미술품 3,699점 중 750점은 진품 보증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□ 작가가 본인 작품을 기증 혹은 판매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

진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소장가, 기관·단체, 화랑 등을 통해 구매한 작품들은 진품 보증서가 없다면 ‘위작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개정안은 조례 내에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만에 하나 소장 작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